

# 북한 경제 개발 주도권 거머쥘 자금줄은 어느 나라에서 나올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 회담을 열고 북·미 관계 구축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 포괄적이고 심도 있고 성실한 의견 교환을 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이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진행될 경제개발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쥘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간경향(khan.co.kr)에 따르면 이미 경제를 개발할 의사를 공공연히 보여온 북한에 본격적인 외부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돈줄'을 쥐는 쪽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운운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티끌만한 기대도 걸어본 적이 없다" 며 자력갱생을 위한 체제보장에 보다 회담의 우선 순위를 둔다는 뜻을 보였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관해 "한국이 나설 것이고 중국과 일본이 도움을 줄 것"이라며 미국은 한 발 물러선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미국의 민간자본이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줄곧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양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북한은 체제보장이 최우선이지만 그만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바라고 있고, 미국 역시 국내 여론과 트럼프 정부의 입지 탓에 정부가 직접 나서 북한을 지원하는 데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개방된 북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이 매체의 전망이다.

## ■ "미국 민간 자본 유입 막지 않겠다"

'주간경향'은 그러면서 문제는 남한의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 체제보장을 위한 기본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에도 경제개방의 모델이 어떤 식일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한 뒤 경제건설 집중을 선언한 배경을 보면 중국식 모델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위원장은 당시 중국관 실리론편리라 불리는 중관촌(中關村) 내 중국과학원을 찾은 바 있



▲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전경

고, 송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서도 중국의 경험을 배울 뜻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규모나 특성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식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4월 정상회담에서 직접 베트남식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베트남식 모델은 특구를 지정해 일정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한 중국과 달리 노동당의 1당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이 직접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선정한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체제 유지에 힘이 실린 노선이다.

전문가들은 선불리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이 김정은 체제 이후 진행해온 경제특구 계획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경협이 위축되면서 한동안 중국에 대한 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10년 나선시를 특별시로 격상시키고, 2011년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해 이들 지역을 중국과 함께 공동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정책을 추진한 장성택의 숙청과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및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이들 경제특구 개발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중국도 북한과의 접경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는 적극적이었으나 나선특구 투자만 볼 때 서비스업종 위주로 진행돼 북한의 필요가 큰 제조업 부문 투자는 적극 추진되지 않았다.

국제제재 때문에 중국과 함께 진행 중이던 개발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이 내놓은 방안이 경제개발구 확대 설치였다. 나선특구와 황금평·위화도,

개성공단 등 기존 5개 경제특구 외에 김정은 위원장이 새롭게 지정한 경제특구·경제개발구가 있다. 2013년 이후 20여곳이다. 이 특구 지정을 중앙과 지방급으로 이원화한 점이나, 특구·개발구 밖의 북한 기업도 새롭게 진출할 수 있게 한 점, 그리고 외국 자본이 지대 밖의 북한 기업들과도 연계될 수 있게 한 점 등에서 중국식 경제특구 정책을 참고한 흔적이 엿보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미 마련됐지만 대북제재 때문에 실행이 어려웠던 경제특구·개발구 중심의 중국식 모델을 바탕으로 하되 중앙권력의 영향력은 강화하는 방안을 더한 베트남식 모델을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다.

북한이 이미 수립한 경제개발계획의 골격을 유지할 경우 남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여지가 생긴다. 북한이 최근 5년간 신설한 경제개발구들이 공업개발구·농업개발구·관광개발구·수출가공구 등으로 각 지방에서 가진 비교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특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개성공단의 경험이 있고 제조업체들의 수요가 큰 남한으로서는 제조업 중심의 공업개발구와 수출가공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위탁가공이나 생산에 있어서의 분업공정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 경우 어떤 정책이든 기존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식 모델'이 중·단기적으로는 가장 가시권에 들어오는 북한 경제개발 모델의 한 축이 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 ■ 자금조달 환경 조성 남한이 주도해야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내부의 경제개발계획과는 별개로 남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환경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중심의 개방계획만 볼 경우 체제 안정을 노리는 북한정권의 통제와 안배에 따라 미국과 중국 등에 독점적으로 지정되는 지구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의 인접성과 북한의 금융인프라 부족 상황을 이용하면 북한 자체의 경제개발과 병행해 남한 경제에 활력을 줄 요인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한은 거리적 인접성, 언어·문화적·민족적 동질성으로 향후 EU와 같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거나 경제공동체 등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ric Kang**  
이릭강  
Cell 213.663.8544  
erickang@newstarrealty.com

**뉴스타부동산**  
파사데나, 라카나다, 샌제브리엘, 아카디아, 알타데나, LA 전지역, OC 전지역, 라크레센타

**잘 ~ 팔고 잘 ~ 사드립니다!**

Office 213.385.4989

<p><b>다운타운 메디칼 유니폼 출세일</b></p> <p><b>\$738,000</b></p> <p>[월 매출] 평균 62,000 Net 12,000 이상</p> <p>인베토리 450,000 (수입원가) 20년된 비즈니스, 영어필요 가족 비즈니스로 최고의 아이템, 무한한 포텐셜</p> <p>꼭 사실분만 연락주세요</p>	<p><b>S 파사데나 \$110만</b></p> <p>방2+화1 건약 1,370sf 대 약 6,900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교</p>	<p><b>S 파사데나 \$110만</b></p> <p>방3+화1 건 약 2,200 sf. 대 약 9,5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교</p>	<p><b>파사데나 \$68만</b></p> <p>방2+화2 건 약 1,150 sf 대 약 6,35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p>	<p><b>파사데나 \$71만</b></p> <p>방2+화1 건 약 900 sf 대 약 4,7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p>	<p><b>파사데나 \$85만</b></p> <p>방3+화2 건 약 1,700 sf 대 약 6,500 sf. 조용하고좋은동네</p>
	<p><b>라크레센타 \$83만 9천</b></p> <p>방3+화2 건 약 1,667 sf. 대 약 6,3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교</p>	<p><b>라크레센타 \$89만 9천</b></p> <p>방3+화2 건 약 1,650 sf. 대 약 5,4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교</p>	<p><b>라카나다 \$120만</b></p> <p>방3+화2 건 약 1,200 sf. 대 약 5,200 sf. 조용하고 좋은동네 좋은학교</p>	<p><b>라카나다 \$170만</b></p> <p>방3+화2 건 약 2,000 sf. 대 약 22,000 sf. 좋은동네, 좋은학교</p>	<p><b>라카나다 \$199만</b></p> <p>방4+화4 건 약 3,400 sf. 대 약 22,000 sf. 좋은 동네, 좋은 학교</p>
	<p><b>\$54만 9천</b></p> <p>방2+화1 건 약 1,250 sf. 대 약 6,100 sf. 좋은학교</p>	<p><b>\$65만</b></p> <p>방3+화2 건 약 1,100 sf. 대 약 5,700 sf. 좋은학교</p>	<p><b>\$70만</b></p> <p>방3+화2 건 약 1,530 sf. 대 약 8,500 sf. 좋은학교</p>	<p><b>\$89만 9천</b></p> <p>방6+화4 건 약 2,700 sf. 대 약 7,700 sf. 좋은학교</p>	<p><b>\$98만</b></p> <p>방2+화1 건 약 1,30 sf. 대 약 10,800 sf. 좋은학교</p>
	<p><b>\$50만</b></p> <p>방3+화2 건 약 1,300 sf. 대 약 6,400 sf. 조용한동네</p>	<p><b>\$67만</b></p> <p>방3+화3 건 약 1,600 sf. 대 약 8,000 sf. 좋은동네</p>	<p><b>\$69만</b></p> <p>방3+화2 건 약 1,400 sf. 대 약 7,100 sf.</p>	<p><b>\$70만</b></p> <p>방2+화2 건 약 1,150 sf. 대 약 5,500 sf.</p>	<p><b>\$74만</b></p> <p>방2+화2 건 약 1,350 sf. 대 약 6,250 sf.</p>
	<p>Realtor Associate at Beverly Hills Board of Realtor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CAR</p>				

**상 가 / 아 파 트 / 창 고 사 고 파 실 분 연 락 주 세 요 !**